



이 달의 계란 전망

본회 경영지원부

산란실용계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  
- 농가수취가격 원가 밀돌 듯 -

◆ 동향

어렵게 원가를 회복했던 난가는 3월 말 산지 부활절 계란집란이 끝남에 따라 다시 하락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수도권 기준 143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현장에서 생기는 D/C폭을 제외하면 이미 농가수취가격은 원가이하로 형성되고 있다.

3월 가축통계결과가 발표되면서 업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하였다. 우려했던 데로 노계도태 지연과 과도한 입식으로 인해 산란실용계 사육수수는 처음으로 6천만수를 넘어섰다. 이처럼 계란생산량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다. 4월은 봄소풍과 더불어 계란수요도 증가하는 시기이나 예년에 비해 공급기반이 두터워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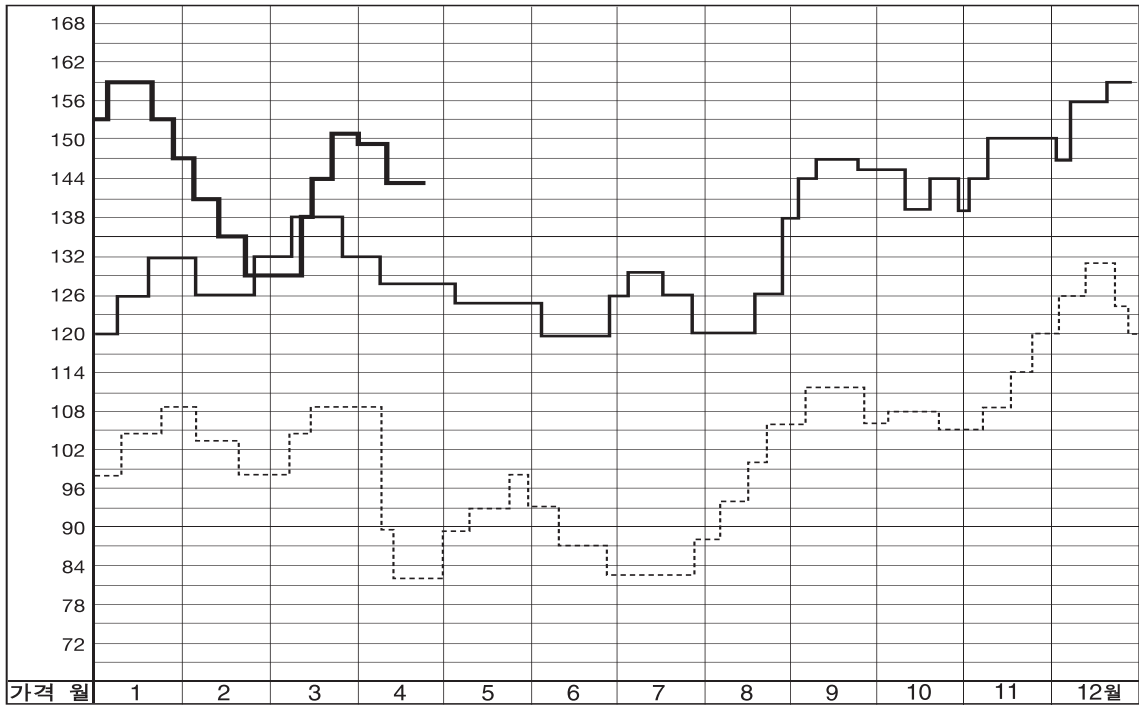
3월 산란총계는 43,500천수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다. 금년 1/4분기 총 입식수는 91,800천수로 전년 동기기간대비 31.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부담과 산란실용계생산잠재력 증가에 따른 입식자제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산란실용계는 329만수가 입식되어 전년대비 4.5%가 증가하였으며,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분양수가 다시금 300만수대로 진입하였다. 산란실용계 생산량 증가에 따라 거래단가도 품종·부화장별 단가차이가 있으나 소폭 하락하여 대략 수당 850~950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가축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수수는 60,237천수로 전년대비 4.1%가 증가하여 사상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장기간 노계도태가 지연되었고 무분별한 초생추 과잉입식으로 인한 결과이다. 지난 3월 배합사료 생산실적에 따르면 육주사료와 산란계사료는 각각 25,136톤, 168,097톤으로 전년대비 1.0%, 3.6% 증가하였으며, 산란총계사료는 4,270톤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하였다.

◆ 전망

5월은 봄철 소모성 질병이 잦은 시기로 산란율 저하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계란생산량은 사육수수에 비해 한 생산잠재력에는 다소 못 미치겠다. 또한 계란 재고량 소진을 위한 대형할인매장의 할인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다소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많아 수취가격은 원가를 밀돌 가능성이 큰 만큼 5월 난가는 어렵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상기 각종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이미 생산기반이 과잉되어 있어 어려운 시기에 봉착하겠다. 노계출하움직임 부진으로 큰알의 유통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유통상인들 역시 계란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산지에서의 계란 구매움직임은 더욱 더딜 수밖에 없겠다.

배합사료업계에서 가격 인하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농가의 원가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가절감기대로 노계군의 생산기간을 연장시킬 경우 난가불황은 더욱 장기화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노계도태가 요구된다.



※ 2007.4.7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2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7-- 2008- 2009-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6	39,150	2,050	20.4	168.4	1,050	973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	2006	14,000	2,654	19.8	151.8	1,050	894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3	2006	0	2,752	23.2	171.9	1,050	1,020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1,002	1,420
4	2006	36,000	2,288	25.8	159.2	1,050	1,025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5	2006	48,500	2,637	29.1	165.2	1,050	1,031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6	2006	52,000	2,523	28.0	162.7	1,056	1,062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	2006	33,000	2,390	25.1	154.8	1,139	1,100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8	2006	34,820	2,693	24.7	156.6	1,150	1,14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9	2006	31,700	2,508	25.7	170.5	1,188	1,265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10	2006	59,500	2,415	27.8	163.5	1,200	1,134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11	2006	50,000	2,311	26.1	160.7	1,200	1,097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2	2006	30,000	2,351	26.3	165.2	1,194	1,0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계	2006	428,670	29,572	302.1	1,950.8	1,115	1,003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닉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A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